



제목	Iran: What Everyone Needs to Know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1. 2.
저자	Michael Axworthy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24
ISBN 또는 ISSN	978-0190232962

내용 요약

이 책은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자체의 문화, 경제, 정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학자들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수니파 국가들과의 적대적 외교관계의 현상을 보고자 했다면 저자는 이란 역사에 대한 추적으로 그런 적대관계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했다. 이유는 저자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적대관계의 근원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첫째 이란 민족주의는 7세기 아랍 정복의 본질과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적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과 연관 지어야만 해명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의 뿌리는 이란의 언어가 이웃 중동 국가들의 셈족의 언어가 아니라 인도유럽 언어라는데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적대감은 19세기 제국주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 1953년 모사데크 쿠데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장 “고대와 이슬람 이란”은 이란의 기원, 조로아스터교, 키루스 대왕,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 정복과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담고 있다. 2장 “사파비조와 서구의 영향”은 사파비조의 붕괴 원인,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이익과 이란의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3장 “팔레비조”에서는 20세기 이란 석유에 대한 영국의 통제, 레자 샤와 영국의 갈등, 망명, 무함마드 레자 샤의 개혁을 포함하였다. 4장 “1979년 혁명”, 5장 “이란-이라크 전쟁”, 6장 “아마디네자드, 로하니, 오늘날의 이란” 등은 이란이 위협적인 세력인지, 이란이 적대관계를 유발했는지, 이란 내부의 영향은 무엇인지를 추적하였다.